

## 『음식디미방』의 ‘디미’에 대하여\*

한 학 중\*\*

- I. 머리말
- II. ‘디미’에 대한 기존의 견해
- III. ‘디미’의 의미와 한자 표기안
  - 1. ‘之美’
  - 2. ‘旨美’
  - 3. ‘旨美’, ‘至味’, ‘至美’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음식디미방』은 17세기 후반에 작성된 최초의 한글조리백과서이다. 지금까지 『음식디미방』의 한자표기는 ‘飲食知味方’으로 여기고, 그 뜻은 도리어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자표기와 의미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知味’는 ‘맛을 알다’는 뜻일 뿐, ‘음식의 맛을 내거나 음식을 맛있게 만들다’는 의미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飲食知味方’은 음식조리서로서의 ‘음식디미방’의 한자표기로 일정 부분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있다.

\* 이 글을 완성하는 과정에 음운현상 관련 자료와 도움을 제공해준 김정태 교수(충남대 국어국문)와,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으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영남학』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영진전문대학교 글로벌외국어관광전공 조교수 / hanhak@yju.ac.kr

이에 본 연구는 ‘음식디미방’의 새로운 표기를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飲食旨美方’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음식디미방’은 바로 ‘飲食旨美方’의 당시 한자음 표기이며, 그 뜻은 ‘음식의 맛 방문(方文)’, 곧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문’이 된다.

다만, ‘음식디미방’이 ‘飲食旨美方’의 한자음 표기라고 할 때, 여기에는 당시 한자음이 ‘지’였던 ‘旨’가 어떻게 ‘디’로 표기될 수 있는냐는 문제가 대두하는데, 이 문제는 당시에 보편화된 과도교정(過度校正) 현상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당시에 유행했던 국문소설에서는 이미 수많은 ‘旨’가 ‘디’로 표기되고 있었다. 이처럼 ‘디’가 ‘旨’의 독음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디미’는 또한 ‘旨美’로 여길 수 있고, 그 뜻은 바로 ‘맛있다’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旨美’는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형용하는 최적의 표현으로, 이미 『毛詩正義』에 그 용례가 확인되었다.

‘디미’가 ‘旨美’로 표기될 때, ‘음식디미방’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문’이라는 뜻을 갖게 되어, 책의 이름과 내용의 정체성이 비로소 하나가 된다. 당시의 한자음, 어휘간의 결합구조, 의미 등을 고려해도 모두 무난해 보인다. ‘디미’는 오늘날 ‘맛있다’는 말에 대한 정겨운 우리의 또 다른 옛 표기인 셈이다. ‘음식디미[飲食旨美], 음식이 맛있다’는 뜻이며, ‘음식디미방[飲食旨美方]’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문’이라는 말이다.

◆ 주제어

음식디미방, 飲食知味方, 飲食旨美方, 디미, 知味, 旨美, 과도교정, 맛있다

## I. 머리말

『음식디미방』은 조선시대 17세기 후반에 정부인 안동장씨로 불리는 장계향(張桂香, 1598~1680)에 의해 작성된 최초의 한글조리백과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의 표제는 ‘閨壺是議方’(규곤시의방)이나, 지은이가 직접 쓴 내용 첫머리에 본문과 같은 필체로 ‘음식디미방’이라는 한글 이름이 써여져 있어 이것을 정식 서명으로 삼는다. 표제 서명인 ‘閨壺是議方’은 지은이의 남편인 이시명(李時明, 1590~1674)이나 후손이 책의 격식을 갖추기 위하여 붙인 것으로,<sup>1)</sup> 이러한 연유로 이 책은 특별히 두 개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 책에는 모두 146항의 음식 조리법이 수록되어 있는데, 면병류(麵餅類) 18항, 어육류(魚肉類) 74항, 주류(酒類) 51항, 초류(醕類) 4항이다. 이 가운데에 16항에는 특별히 ‘맛질방문’이라는 표기가 있는데, 이는 집필자의 친정어머니 동네인 예천군 용문면 계곡리 맛질마을에서 전수 받은 외가의 조리비법을 소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2)</sup>

이 책은 뒷면의 필사기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지은이가 직접 보고 배우고 익혀 알고 있는 당시의 음식조리법을 후대에 전해주기 위하여 만년에 온 정신을 집중하여 쓴 것으로 지은이의 음식문화에 대한 애착과 자손에

---

1) 문화재위원회의 회의자료에는 이시명의 글씨로 전한다고 하였고, 백두현은 남편이나 후손들이 붙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화재위원회,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230~231, 244쪽.

백두현, 정부인 안동 장씨, 『음식디미방 주해』, (서울, 도서출판 글누림, 2006.) 19~20쪽.

2) 문화재위원회, 앞의 자료, 245쪽; 백두현·정연정, 『『음식디미방』의 ‘맛질방문’ 재론』, 『지명학』30권, 한국지명학회, 2019. 157~205쪽, 초록.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맛질’은 ‘봉화군 명호면’이라는 견해도 있고,(김미영, 「전통의 오류와 왜곡의 경계선」, 『비교민속학』 46호, 비교민속학회, 2011. 437~469쪽, 초록) 또 지명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 만들기’와 같은 행위개념으로 여기는 견해도 있다. (배영동, 『『음식디미방』음식명에 병기된 ‘맛질방문’의 정체 재검토』, 『실천민속학연구』 39권, 실천민속학회, 2022. 409~454쪽, 초록)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난다. 권말에 씌어진 필사기는 다음과 같다.

이 책을 이렇게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자식들은 각각 베껴 가되, 이 책을 가져 갈 생각일랑 절대로 내지 말며,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 빨리 떨어져 버리게 하지 말아라.<sup>3)</sup>

이 글을 보면 지은이는 이 책을 쓰면서 자손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당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이 책을 힘들게 쓴 지은이의 심정을 헤아릴 것.

둘째, 이 책에 써진 대로 시행하여 조리법을 잘 계승할 것.

셋째, 딸자식들은 내용을 베껴 사용하고, 이 책을 절대 가져가려 하지 말 것.

넷째, 이 책을 상하지 않게 잘 간수하여 종가 대대로 전해줄 것.

이로부터 우리는 『음식디미방』은 지은이가 음식조리법의 보존을 위하여 자손 대대로 종가의 음식이 멀리 후대에까지 계속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는 사실과 며느리 딸 할 것이 없이 모두 이 책에서 전하는 음식조리법을 잘 익혀 널리 계승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책만큼은 종가에 대대로 전해지기를 바랐다.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보게 된 것은 지은이의 애착과 후손들의 효심이 맞닿아 이루어진 정성의 결과이다.

이 책은 지은이가 태어나 자라면서 직접 보고 배우며 익힌 다양한 음식조리법을 제시하고 있어 당시의 음식문화는 물론, 책 전체가 한글로 되어있어 당시의 한글 표기와 어휘 등 국어사의 자료까지 풍부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

3) 백두현, 앞의 책, 13쪽.

이책을이리눈어두온디간신히써시니이쓰줄아라이째로시행호고쫄조식들은각각벗겨  
가오디이책가더갈싱각을안싱심말며부디상치말게간쇼호야수이써러브리다말라

지금까지 『음식디미방』에 대하여 식품영양학, 음식조리학, 인류문화학, 국어학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여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였고, 또 많은 부문에서 실생활에 응용하여 그 가치를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디미방’의 서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쾌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여간 아쉽지 않다. 말하자면, ‘음식디미방’은 누가 보아도 ‘음식조리서’임이 분명할진대, 지금까지 밝혀진 견해로 ‘음식디미방’은 ‘飮食知味方’의 한자표기로서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sup>4)</sup> 또는 ‘좋은 음식 맛을 내는 방문(方文)’<sup>5)</sup>이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디미’의 한자표기 ‘知味’는 ‘맛을 알다’는 뜻으로, ‘음식을 조리하다’거나 ‘음식 맛을 내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조리서로서의 ‘음식디미방’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를 제대로 체현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음식디미방’이 조리서라는 점에서 또한 그 제목이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내용과의 관련성이 그다지 깊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디미’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찰과 새로운 인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여기에서는 ‘음식디미방’의 명칭 문제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표기안을 제시함으로써 ‘음식디미방’이 갖는 본래의 표기를 밝혀보고자 한다.

## II. ‘디미’에 대한 기존의 견해

‘음식디미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디미’이다. 그렇다면 ‘디미’는 고유어인가, 한자어인가?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한글자료와 『표준한국어 대사전』에는 이 ‘디미’라는 어휘가 보이지 않는다. ‘디미’라는 우리말 어휘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 말은 최소한 고유어는 아닐 것으

4) 한복려 외, 『다시 보고 배우는 음식디미방』, 궁중음식연구원, 1999, 18쪽.

5) 백두현, 앞의 책 21쪽.

로 생각된다.

‘음식디미방’의 명칭과 관련하여 이 문헌의 존재를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한 김사엽은 이를 ‘음식지미방(飮食地味方)’의 당시 표기로, ‘디미’를 ‘지미(地味)’의 한글 표기로 보았다.<sup>6)</sup> ‘디’는 ‘地’의 원음이라는 것이다. 실제 당시 한자음을 기록한 자료들은 모두 ‘地’의 훈음을 ‘싸 디’라고 하였다.<sup>7)</sup> 그렇다면 ‘디미’의 의미는 ‘현지 음식 맛’이 되며, ‘음식디미방’은 ‘석계 중가 현지 음식 맛 방문(方文)’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백두현은 책의 내용으로 볼 때 ‘디미’가 ‘地味’를 표기한 것일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다.<sup>8)</sup> 이 글에서도 ‘디미’가 ‘地味’일 가능성은 배제한다. 지은이가 조리방법에 관한 글을 쓰면서, 굳이 그 책의 이름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명을 밝히지 않은 채 ‘어느 지방’의 음식조리법이라고 할 가능성은 희박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디미’의 표기로 ‘地味’ 다음으로 등장한 말은 ‘知味’이다. ‘디미’를 ‘知味’로 여긴 최초의 연구자는 황혜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혜성은 서명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閨壺是議方[해설본]』에 ‘음식디미방【飮食知味方】 解題’라는 한자표기만을 제시하였을 뿐이다.<sup>9)</sup> 다만, 황혜성의 훈육을 받은 한복려 등이<sup>10)</sup> “『음식디미방』은 현대식 발음으로 『음식지미방(飮食知味方)』이다. 이는 ‘음식의 맛을 아는 법’이란 뜻으로, 식품의

6) 백두현, 앞의 책 20쪽.

7) 『訓蒙字會』(규장각 소장본, [奎賁26], 편저자: 崔世珍(朝鮮)編, 간행년대: 1613) 0010쪽.

『新增類合』(규장각 소장본, 一簣古418.3-Y91s 편저자: 柳希春(朝鮮), 간행년대: 1576) 0007쪽.

『千字文』(규장각 소장본, 奎9801 편저자: 韓濩(朝鮮) 書, 간행년대: 1754) 0011쪽

『華東正音通釋韻考』(규장각 소장본, [가람古 416 B149h], 朴性源, 1747) 018b쪽

8) 백두현, 앞의 책, 20쪽.

9) 황혜성, 『閨壺是議方 음식디미방』, 韓國印書出版社, 1980, 3쪽.

그러나 황혜성은 직접 ‘디미’를 ‘知味’로 표기한 근거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知’의 옛음이 ‘디’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래의 『(다시 보고 배우는) 음식디미방』의 저자의 어머니로서 이들을 모두 궁중음식조리전문가로 훈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책 또한 직접 감수를 하였기 때문이다.

10) 황혜성과 한복려(한복선, 한복진) 등은 모녀 관계로, 모두 궁중음식기능보유자이다.

조리 방법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여, ‘디미’를 ‘知味’로 여기는 것은 옛음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sup>11)</sup> 백두현 또한 ‘知’의 고음이 ‘디’임을 들어 음상으로 보아 ‘디미’의 표기로 ‘知味’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백두현은 한복려 등과 달리 ‘음식디미방’의 뜻을 ‘좋은 음식 맛을 내는 방문(方文)’이라고 풀이하였다.<sup>12)</sup>

이 외에, ‘음식디미방’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를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기록한 회의자료에는 “‘음식디미방’은 ‘飲食知味方’으로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여,<sup>13)</sup> ‘디미’의 한자표기는 앞의 백두현과 같이 여기면서도 의미는 또 다르게 풀이하였다. 백두현이 책의 성격을 중시한 나머지 서명의 한자표기 의미를 가볍게 본 데 반하여, 한복려와 문화재위원회는 한자표기의 의미를 중시한 나머지 책의 성격을 오해하게 풀이하고 말았다. 내용은 음식조리서인데, 이름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현시점에서 ‘음식디미방’이 ‘飲食知味方’의 한자표기라는 견해는 거의 보편화된 듯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의 한자음을 수록한 조선시대 대부분의 관련 문헌이 ‘知’의 훈음을 ‘알 디’라고 한 것에서 쉬이 보편성을 얻은 듯하다.<sup>14)</sup> 이에 ‘음식디미방’의 지은이인 정부인 안동장씨 장계향기념관 앞 안내게시판에는 “‘좋은 음식 맛을 내는 방문(方文)’이라는 뜻을 담은 조리백과 음식 디미방”이라고 하였고,<sup>15)</sup> 정만진은 ‘음식디



〈그림1〉 장계향기념관 게시판

11) 한복려 외, 앞의 책 18쪽.

12) 백두현, 앞의 책 20~21쪽.

13) 문화재위원회, 앞의 자료, 244쪽.

이는 황혜성, 한복려 등의 견해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14) 『新增類合』(앞의 책) 0007쪽.

『千字文』(앞의 책) 0025쪽.

15) <그림 1> 장계향기념관 게시판 참조.

미방’을 ‘음식의 맛을 내는 방문’이라고 하였으며,<sup>16)</sup> 이상국은 또 ‘飮食知味方, 마시고 먹는 일의 맛을 분간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sup>17)</sup>

이상으로 보면 의미풀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음식디미방’이 ‘飮食知味方’의 한글표기라는 것은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sup>18)</sup> 그러나 ‘디미’를 ‘知味’로 여기는 데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수긍하기 힘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음식디미방』은 겉표지에 책의 격식을 갖추기 위하여 별도의 ‘閨壺是議方(구근시의방)’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閨壺是議方’이라는 표제를 누가 썼는지 간에, 그 의미는 ‘음식디미방’이 갖는 고유의 의미와 일맥상통할 것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閨壺是議方’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부녀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란 뜻이다.<sup>19)</sup> ‘방문(方文)’은 ‘처방이나 방법을 쓴 글’이란 뜻으로, 오늘날 용어로 대체하면 ‘설명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sup>20)</sup> 그렇다면 ‘閨壺是議方’은 또 ‘부녀자들이 알아야 할 방문, 곧 설명서’로 풀이할 수 있다. 이제 ‘음식디미방’의 의미를 ‘閨壺是議方’과 관련시키고, 또 책의 내용이 ‘음식조리법’을 소개한 것이라고 볼 때, 그 의미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16) OhmyNews > 여행 > 대구경북 > 경북 고택 기행 | 1화.

장계향과 이문열의 고향 고택에서 '하룻밤'

[경북 고택 기행①] 영양군 두들마을

15.06.17 16:32 / 최종 업데이트 15.07.13 16:43 / 정만진(daeguedu)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8097](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8097).

17) 이상국, 「나비, 장계향을 위하여」 | 에세이 뒷마루. 2019.5.8.

<https://blog.naver.com/isomis/221532503981>.

18) 영양군에서 설립한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는 음식디미방 시식체험동의 이름을 ‘디미관’(知味館)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시식체험’을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매우 잘 어울리는 이름으로 여겨진다.

19) 백두현(앞의 책, 21쪽)은 ‘부녀자에게 필요한 것을 올바르게 풀이한 방문’이라고 풀이하였다.

20) 방문1(方文) : 「명사」 『한의』 약을 짓기 위하여 약 이름과 약의 분량을 적은 종이.=약방문. 『표준국어대사전』.



방법을 쓴 글’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음식디미방’의 한자표기로 여겨지고 있는 ‘飲食知味方’이라는 표기는 한글서명 ‘음식디미방’이 나타내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셈이다. 즉, 한글표기로서의 ‘음식디미방’은 결코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을 수록한 책이 아니며, 또한 한자표기 ‘飲食知味方’이라는 말은 결코 ‘좋은 음식 맛을 내는 방문(方文)’이라는 의미도 아니니, ‘음식디미방’을 ‘飲食知味方’의 한자표기로 여기는 것은 아무래도 타당성을 가지지 못할 듯하다.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쓴 글’이라는 명약관화한 음식조리서를 두고, 그 의미를 ‘좋은 음식 맛을 내는 방문(方文)’이니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니 하여 풀이를 완전히 달리 하는 것은, 그 근원인 서명의 한자표기에 문제가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책의 내용과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한자표기 ‘飲食知味方’이나 문화재위원회의 풀이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말을 보면, 이 책은 음식조리서라기보다 오히려 음식을 즐기는 방법이나 맛을 평가하고 감정하는 방법을 수록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오해마저 불러일으키게 한다. 모두 이름이 바르지 못한 데에서 야기되는 문제이다. 말하자면, ‘디미’라는 독음에 의존하여 채택한 한자 표기 ‘知味’를 두고 책의 내용을 고려하여 풀이하니, 자연이 이 둘이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知味’에 대한 기존의 풀이가 건강부회한 점이 있다는 것은 ‘知味’의 실제 용례에서도 확인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知味’는 사전적 의미로 “1. (명사) 미각이 예민하여 맛을 잘 앎. 2. (명사) 궁중에서, 음식의 맛을 보는 일을 이르던 말.”<sup>21)</sup>일 뿐, ‘음식을 조리하다’거나 ‘맛을 내다’는 뜻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知味’는 통상 다음의 용례로 사용되었다.

(1) 口能啖尝, 舌能知味。『白虎通道德』

입은 맛을 보게 하고, 혀는 맛을 알게 한다.

21)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여기에서 ( )는 편의를 위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표기하였다.

(2) 人莫不飲食，鮮能知味。『中庸』

사람은 먹고 마시지 않는 이가 없건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3) 食不知味。『大東野乘 己卯錄續集』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한다.

(1~3)을 보면, ‘知味’는 ‘맛을 알다’는 뜻일 뿐, ‘맛있다’거나 ‘맛을 내다’는 의미를 표현하지 않는다. ‘맛을 알다’라는 ‘知味’의 의미를 아무리 확장하고 인신(引伸)해보아도 ‘맛있다’나 ‘맛있게 하다’와는 관련되지 않는 것이다.<sup>22)</sup> 그렇다면 ‘음식디미방’의 ‘디미’와 한자어 ‘知味’의 대응은 아무래도 타당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디미’에 맞는 새로운 표기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 Ⅲ. ‘디미’의 의미와 한자 표기안

‘음식디미방’이 음식조리백과라하면 여기에서 ‘디미’는 필연적으로 ‘맛’과 관련될 것이며, 그것은 더욱 ‘맛있음’을 내포할 것이 틀림없다. 조리를 한다는 것은 분명 ‘맛있음’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음식디미방’의 의미구조를 ‘飲食 [...맛...] 方文’이라고 할 때, 전체 의미는 자연스럽게 ‘음식을 맛있게 하는 / 맛내는 방문’ 정도가 될 것이니, 결국 ‘디미’는 ‘맛있다’거나 ‘맛을 내다’는 의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곧 ‘디미’는 그저 ‘맛있다’는 의미를 갖는 말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음식디미방’의 표기를 고려하면, ‘디미’의 한자 표기에 좀 더 폭넓은 사고를 가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제시된 견해들은 모두 ‘디미’를 한자음의 본음에만 의존한 경향이 강하였다. ‘地味’가 그러하고 ‘知味’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디미’가 갖는 원래의 의미를 홀시할 수밖에 없었다.

22) 더구나 여기에서 ‘맛을 알다’라는 ‘知味’라는 말도 또한 단순히 음식의 맛을 아는 일상적인 뜻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매우 철학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여기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표기에 대한 논의를 접근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디미’를 독립된 단어로 여기지 아니하고 개별 글자로 보아 ‘음식디미방’ 전체를 하나의 의미절로 설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디미’의 한자음에 당시의 속음까지 아우르는 융통성을 가져보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 여기에서는 ‘맛있다’는 의미와 관련될 수 있는 ‘디미/지미’의 한자 표기 ‘之美’, ‘旨美’, ‘旨味’, ‘至味’, ‘至美’를 상정하고,<sup>23)</sup> 이들의 의미, 구조, 옛한자음 등을 종합 고찰함으로써 ‘음식디미방’이 갖는 본래의 표기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 1. ‘之美’

‘飲食知味方’이란 한자표기가 책의 내용을 대변하지 못하고, ‘旨美’나 ‘至美’ 또한 ‘디미’의 한자표기로 문제가 있다는 상황에서,<sup>24)</sup> ‘음식디미방’의 ‘디미’의 한자표기로 가장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한 것은 ‘之美’였다.<sup>25)</sup> 만일 이 표기가 가능해진다면, ‘음식디미방’은 ‘飲食之美方’이 되고, 그 뜻은 ‘음식의 맛(내는) 방문(方文)’이 되어, 의미상이나 어휘구조적인 측면에서 무난한 한자표기가 될 수 있다. 즉 ‘飲食之美方’으로서의 ‘음식디미방’은 [음식][디][미방] 또는 ‘[음식디미][방]’으로 분석되고,<sup>26)</sup>

2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디미/지미’의 독음에 ‘맛’과 관련되는 말로 ‘地味, 旨美, 至味, 至美, 知味’ 등 다섯 개의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之美’는 연구자가 같은 독음과 의미를 갖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旨味’는 『中文大辭典』(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大北, 中國文化學院華岡出版有限公司, 1979)에 표제어로 올라 있기 때문이다.

24) 백두현은 또 ‘知味’와 함께 ‘至味’(아주 좋은 맛 또는 그런 음식), 또는 ‘至美’(아주 아름답다), 혹은 ‘旨美’(맛이 좋다)와 같은 한자어를 표기한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至’와 ‘旨’의 고음이 ‘디’가 아닌 ‘지’이므로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백두현, 앞의 책 20~21쪽)

25) 이러한 추론은 언젠가 고대국문소설의 목차에서 언뜻 스치며 본 듯한 ‘권디일/卷之一’의 잔상에서 비롯되었다. ‘디’가 ‘之’의 표기일 수 있다는 추론의 단서가 되었다.

26) 연구자는 ‘음식디미방’의 구절구조가 [음식디미][방]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긴다. 후술된다.

의미 또한 음식조리서로서의 내용을 적절하게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 (4) 飲食 : 음식  
 之 : 의  
 美 : 맛(내는)  
 方 : 방문(方文)

이 견해의 성립 관건은 무엇보다 ‘之’의 독음이 ‘디’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한글 창제 당시부터 ‘之’의 한자음은 줄곧 ‘지’였다.<sup>27)</sup> 『훈민정음해례본』부터 『華東正音通釋韻考』에 쓰인 용례까지 ‘之’의 한자음은 변함없이 ‘지’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디미방’의 ‘디’가 ‘之’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17세기에 보편화되었던 과도교정과 관련한 ‘之’에 대한 당시 한자음의 변화에 기인한다.

잘 알다시피 ‘음식디미방’은 17세기 후반에 한글로 씌어진 음식조리서이니, 당연히 당시의 한자음 변화양상이 여실히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그림2〉 조령 산불도심 표석

시기에 일어난 음운현상으로 구개음화와 과도교정(過度校正) 현상을 들 수 있다. ‘과도교정’이란 ‘일정한 언어 사회에서, 어떤 어형을 규범에 맞

27) <훈민정음서문>: 國諱之正語聲音

『訓蒙字會』(앞의 책): 初聲獨用八字 ㅈ之 (0007쪽), 之지 (0009쪽)

『千字文』(앞의 책) 0033면: 之 갈지.

『類合』(규장각 소장본, 일사古 418.3-G533y, 편저자: 高裕相(朝鮮)編, 간행년대: 1918) 5면: 之 갈지.

『新增類合』(앞의 책) 0016쪽: 갈지.

『華東正音通釋韻考』(규장각 소장본, [가람古 416 B149h], 朴性源, 1747) 019a: 之 즈지.

게 적으려다가 오히려 부정확한 형태로 고치게 되는 일’을 말하는데,<sup>28)</sup> 예컨대 <그림2>의 조령 ‘산불도심’ 표석처럼<sup>29)</sup> ‘도심’은 원래 ‘操心’의 한자음 ‘조심’으로<sup>30)</sup>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말이나, 당시 구개음화가 보편화되면서 ‘조심’도 구개음화되어 발음된 말로 잘못 생각하고 마땅히 ‘도심’으로 써야 옳겠다고 지레짐작하여 그 표기를 ‘산불도심’으로 한 것이다.

‘음식디미방’이 작성된 17세기에는 구개음화와 함께 이러한 과도교정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sup>31)</sup> 이 과정에서 ‘之’ 또한 원음인 ‘지’ 대신 ‘디’로 잘못 되돌려 표기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之’가 ‘디’로 과도교정된 표기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sup>32)</sup>

(5) 『창선감의록[倡善感義錄]』<sup>33)</sup>

28) 『우리말샘』: 과도^교정(過度校正).

29) 사진 참조.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26호로, 문경새재길 제1관문에서 제2관문에 이르기 직전에 있다.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을 상초리 산42-51.

30) 『新增類合』(앞의 책) 0058쪽: 操 자בל 조.

31) 이준환은 이런 과도교정은 16세기 자료에서부터 19세기 자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준환, 「舌音系 漢字音의 口蓋音化」, 『한국어학』34. 한국어학회, 2007. 322쪽)

많은 훈몽자회의 이본 가운데에서도 ‘지>디’ 음의 과도교정 현상이 18세기 초에 전사한 제주본 훈몽자회가 예산본, 규장각본 훈몽자회보다 더 흔하게 나타난다. (鄭承喆, 「제주본 훈몽자회의 漢字音」, 『韓國文化』25.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0. 6쪽)

32) 연구자가 이에 대한 단서를 얻은 것은 고소설의 목차였다. 아무래도 눈에 쉬이 띄었기 때문일 것이다.

33) 『창선감의록[倡善感義錄]』(4冊, 필사본,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소개 /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소장본, 청구기호 L44810, 발행사항: 순조18(1818), 表題: 倡善感義錄).

『창선감의록』의 작자는 조성기(趙聖期, 1638~1689)설과 김도수(金道洙, 1699~1733)설이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이는 대체로 17세기 후반이나 18세기 초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백운용 역주, 태민국학연구원 연구총서 57, 김광순 소장 필사본 고소설 100선『창선감의록』, 서울, 박이정, 2019년. 20~21쪽 참조.)

<창선감의록>의 작자는 명나라 역사에 대해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창작 시기는 명청 교체기와 가까운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 사이로 추정된다. (엄기영, 「<창선감의록>의 창작과 명나라 역사 차용의 의미」, 『古典文學研究』.第53

창선감의록 권디일(제1책 3면)<sup>34)</sup>

...

창선감의록 권디스(제4책 3면)

(6) 『옥기린 玉麒麟』<sup>35)</sup>

녹우당본『玉麒麟』에 대하여

옥기린 玉麒麟 권디이 卷之二

옥기린 玉麒麟 권디삼 卷之三

옥기린 玉麒麟 권디스 卷之四

(7) 『서유기』(延世大 소장본)<sup>36)</sup>

목차 / 권디삼 ... 권디십삼

(8) 『완월회맹연』<sup>37) 38)</sup>

권디일(卷之一) ... 권디십(卷之十)

(5-8)은 소설 목차에 사용된 ‘之’가 본음인 ‘지’를 뒤로하고 모두 ‘디’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之’를 ‘디’로 표기한 정황이 17~18세기에

輯, 한국고전문화회, 2018년. 203쪽)

3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에는 또 “창선감의록 권지일”로 되어있다.

『창선감의록(倡善感義錄)』(규장각 소장본, 청구기호: 一叢古813.5-C3629g-v.1-5 趙聖期(朝鮮)著, 간행년대: 1671, 國文)

35) 박재연, 양승민 교주, 『옥기린 玉麒麟』, 다운샘, 서울, 2004.

결론적으로, 「옥기린」의 창작 시기는 대략 17세기 중후반 무렵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쪽) 어휘적 특질로 미루어 녹우당본 「옥기린」은 18세기 초반경에 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옥기린」의 창작 시기는 자동적으로 이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23쪽) 김지연은 『옥기린(玉麒麟)』을 17세기 후반의 국문 중장편소설로 규정하였다. (김지연, 「초기 국문 장편소설 <옥기린(玉麒麟)> 연구」,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159쪽 참조)

36) 연세대 소장본 서유기는 자료의 표기 형태나 어휘의 특징, 문법적 특징 등과 권4~권8 말미에 찍어진 “을사”라는 필사기에 근거하여 1775년(영조 51년) 필사된 것으로 추정한다. (김영, 「朝鮮 後期 明代 小說 翻譯 筆寫本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년 박사학위논문, 24~25쪽, 60쪽)

37) 완월회맹연번역연구모임, 『교주 완월회맹연』, (서울, 휴머니스트, 2022.) ‘차례’ 참고.

38) 규장각본에는 또 “완월회맹연권지일”로 되어있다.

『玩月會盟宴』(규장각본, 청구기호: 古3350-65-v.1-93, 편저자: 미상, 간행년대: 1902)

는 이미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之’는 소설의 목차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용어에 이르기까지 모두 ‘디’로 표기되는 다양한 현상을 보였다.

(9) 『소현성록』<sup>39)</sup>

즈이디정(15권), 인디상정(15권), 부즈디의(3권), 영모디정(11권), 종턴디 혼(1권)<sup>40)</sup>

(10) 『옥기린 玉麒麟』:

인즈디되(人子之道) (55쪽)

딕딕디네(待客之禮) (122쪽)

경성경국디식(傾城傾國之色) (65쪽)

(11) 『신창 맹씨 子孫寶傳 수적』: 17~19세기<sup>41)</sup>

탄디칭선(歎之稱善)/이디둥디(愛之重之)[之:章3] 『신창 맹씨 子孫寶傳 수적』51~52

(12) 『칠장사 유합』: 1664년<sup>42)</sup>

정치음: 디(之)[章3] 『칠장사 유합』7a

(9~12)로 볼 때, 17~18세기에는 이미 ‘之’가 일상적으로 ‘디’로 표기 되고 있어, 『음식디미방』의 ‘디’ 또한 ‘之’의 과도교정 표기일 수 있다는 견해를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다. 특히 (12)의 ‘디(之)’와 관련하여, 이준환은 “『칠장사 유합』과 같은 자석류는 초학서로서 아동들에게 한자와 한자음을 가르칠 때 이용되었다는 면을 고려하면 본음에 대한 의식

39) 『소현성록』은 국문장편소설의 효시로 불리는 작품으로, 이 작품의 창작 시기는 권섭(權燮)이 남긴 자기 집안의 분재기(分財記)를 통해 확인된다. 이 기록에 의하면 권섭은 자신의 어머니인 용인 이씨가 이 작품을 필사하였고 모두 15권 15책인데 이 소설은 장자가 상속하도록 하였다. 용인 이씨의 생몰 연대를 근거로 필사 시기를 추정하면 17세기 후반 정도가 된다. 필사 시기가 17세기 후반이라면 창작 시기는 그보다 선행할 것이 분명하므로 창작 시기를 17세기로 추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조혜란, 정선희 역주, 『소현성록(蘇賢聖錄)1』, 서울, 소명출판, 2010. 12쪽)

40) 慈愛之情, 人之常情, 父子之義, 永慕之情, 終天之恨의 당시 한글 표기이다.

41) 이준환, 앞의 논문(2007a), 321쪽.

이준환, 「고유어와 한자어 구개음화의 상관성」, 『國語學』第49輯, 2007. 55쪽

42) 이준환, 앞의 논문(2007b), 53쪽 재인용.

이 많이 반영된 문헌인데, 이처럼 한자음이 과도교정되었다는 것은 이 문헌을 간행할 때 그만큼 많은 한자음에서 구개음화가 있었음 보여주는 것이다.”<sup>43)</sup>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도교정의 예는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19세기 문헌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민간에서는 이미 속음(俗音)으로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곧 ‘之’의 독음은 당시 이미 ‘디’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가 ‘之’의 한자음일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면, ‘음식디미방’ 또한 ‘飲食之美方’의 한자음 표기로 여기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간에 유행한 국문소설의 목차나 내용에 보이는 과도교정된 당시의 한자음 표기는 민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동시에 ‘음식디미방’과 같은 책을 집필할 정도의 문필가라면 민간에 유통된 국문소설에 반영된 어문 지식의 겸비는 불문가지의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식디미방’의 ‘디’는 ‘之’로 표기될 수도 있으며, 전체 서명을 ‘飲食之美方’으로 구성해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之’는 ‘飲食’과 ‘美方’을 하나로 이어주는 구조조사 역할을 하며, ‘美’는 뒤의 ‘方’과 결합하여 ‘美方’이라는 한자어를 이루어<sup>44)</sup> ‘맛있는 방문(方文)’이란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

한편, 여기에서 ‘미방’을 ‘美方’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혹자들은 ‘맛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뜻이라면 ‘味方’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음식디미방’이 음식조리책과서로서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법’을 표현한 말이라면, ‘미방’의 표기는 마땅히 ‘美方’이어야 옳다. 왜냐하면, ‘맛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는 ‘美’이기 때문이다. ‘美’가 ‘맛있다’는 의미로 사용된 예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식(美食)’과 ‘미식가(美食家)’, ‘미식(美食)하다’ 등이 있다. 여기에서 ‘미(美)’는 모두 ‘맛있다’란 뜻이다. ‘미식(美食)’은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다’는 뜻이며, ‘미식가’는 ‘미식을 하는 사람’ 곧 ‘맛을 즐기는 사람’이라

43) 이준환, 앞의 논문(2007b) 54쪽.

44) ‘飲食之美’가 먼저 결합되고, 여기에 ‘方’이 결합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는 뜻이다. 그리고 ‘미식하다’는 ‘맛있는 음식을 먹다’라는 뜻이 된다.<sup>45)</sup>

이 외에도 ‘美’가 ‘맛있다’는 뜻으로 쓰인 경우로 ‘감미(甘美)롭다’, ‘미주(美酒)’<sup>46)</sup>, ‘미과(美果)’<sup>47)</sup>, ‘미반(美飯)’<sup>48)</sup>, ‘미미(美味)’<sup>49)</sup> 등등이 있다.<sup>50)</sup> 이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美方’이 ‘맛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美’와 달리 ‘맛’을 뜻하는 ‘味’는 ‘맛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맛의 총체’를 의미하는 글자이다.<sup>51)</sup> 곧 ‘味’는 ‘맛있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맛’을 내포하기도 하여 ‘味方’이 곧 ‘맛있는 방법/방문(方文)’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맛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맛있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한자어는 ‘美方’으로 표기해야 하며, ‘음식디미방’을 ‘飲食之美方’으로 표기하는 것은 의미상에서나 어휘구조적인 측면에서 모두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음식디미방’이 ‘飲食之美方’의 한자 표기라면, 그 뜻은 ‘음식의 맛있는 방법을 쓴 글’이 되며, 구절구조는 [음식][디미][방]이 아니라, [음식][디][미방] 또는 [음식디미][방]이 된다.<sup>52)</sup>

이상 ‘之美’에 대한 논의의 결과, ‘飲食之美方’이 한자음과 관련하여 ‘음식디미방’으로 표기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체의 의미와 어휘구조 또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이 표기가 섯 ‘知味’의 대체어로

45)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미식(美食)’을 ‘좋은 음식. 또는 그런 음식을 먹음.’이라고 하였다.

46) 미주5(美酒) 「명사」 빛깔과 맛이 좋은 술. 糯米酒. 『표준국어대사전』

47) 미과2(美果) 「명사」 「1」 맛이 좋고 아름다운 열매. 『표준국어대사전』  
若得美果, 歸獻父母 (약득미과, 귀헌부모) 맛있는 과일을 얻으면,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드리다. (『四字小學』)

48) 溫衣美飯(온의미반): 「따뜻한 의복(衣服)을 입고, 맛있는 음식(飲食)을 먹는다.」는 뜻으로, 풍족(豐足)한 생활(生活)을 이르는 말. (『後漢書』)

49) 美味(미미): 좋은 맛.

50) 또 뒤에 보이는 예문 (14~15)를 참고할 수도 있다.

51)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맛1 「명사」 「1」 음식 따위를 혀에 댈 때에 느끼는 감각.”이라고 하였다.

52) 어느 경우라도 무난해 보인다.

여겨지지 않는 것은 순한글 제목 ‘음식디미방’을 과연 전형적인 한문식 구조의 서명인 ‘飲食之美方’의 표기로 삼았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다. ‘음식디미방’이 ‘飲食之美方’이라는 한문식 이름의 표기였다면, 표지에 굳이 다시 격식을 갖추기 위해 ‘閨壺是議方’이라는 별도의 표제를 붙였을 리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53)</sup>

사실 이 ‘飲食之美方’이란 한자표기는 ‘知味’, ‘旨美’가 모두 ‘디미’의 한자표기로 문제가 있다는 전제 하에 구상된 것으로, 최종 선택여부는 대체가능한 다른 어휘의 검토를 기다린 후 결정하기로 한다.

## 2. ‘旨美’

실제 ‘음식디미방’이 음식조리설명서인 점을 고려하면, 의미상 ‘知味’를 대체할 최적의 표기로 삼고 싶은 말은 ‘旨美’이다. 비록 백두현이 ‘旨’의 고음은 ‘디’가 아닌 ‘지’이므로 ‘디미’를 ‘旨美’로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지만,<sup>54)</sup> ‘음식디미방’이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문(方文)’이라는 뜻을 갖는다면, ‘디미’에 맞는 가장 적절한 한자 표기는 ‘旨美’이다. 잘 알다시피, ‘旨美’는 우리말의 ‘맛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한자어이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旨美(지미)’의 풀이와 한문의 쓰임을 보인다.

(13) 旨美(지미): 지미-하다의 어근

지미(旨美)-하다: 「형용사」 맛이 좋다

旨(지): 맛있을 지 / 맛 지 / 맛있는 음식 지 / 아름다울지

美(미): 아름다울 미<sup>55)</sup>

(14) 我酒既旨, 我肴既美。(宋 司馬光 <園櫻傷老也 其一>)

내 술도 맛있고, 내 안주도 맛있다.

(15) 盎然醺人如酒美, 夢回牙頰聞余旨。(宋 高斯得 <再次韻>)

53) 이는 뒤에 갖게 된 생각이다.

54) 백두현, 앞의 책 20~21쪽.

55) ‘美’는 음식과 관련되면 ‘맛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앞의 ‘之美’ 참조.

흠뻑 취한 사람 술이 맛있는 듯, 꿈결에서 돌아와 입맛을 다시며 남은 맛을 말한다.

(13)은 ‘旨美’가 ‘맛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전통적인 말임을 보여준다. 원래 ‘旨美’는 (14~15)에서 보듯, 서로 같은 뜻으로<sup>56)</sup> 단독으로 음식의 달고 향기로운 맛을 형용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한문의 어휘가 복음화(複音化) 되는 과정에서 이 둘도 자연히 연합관계로 하나의 단어를 이루게 되었다. 다음에서 보듯 ‘旨美’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의 어휘로 동양고전에서 음식의 맛을 형용하는 ‘맛있다’는 표현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왔다.

- (16) 『毛詩正義』<sup>57)</sup>「小雅 鹿鳴之什 鹿鳴」

我有旨酒, 嘉賓式燕以敖.

[疏] 我有旨美之酒,, 與此嘉賓用之, 燕飲以敖遊也.

내게 맛있는 술 있어, 이를 내어 반가운 손님 잔치 열어 즐기네.

- (17) 『毛詩正義』「小雅 白華之什 魚麗」

君子有酒, 旨且多.

[箋] 酒美而此魚又多也.

[疏] 酒既旨美, 且魚復眾多, 魚酒多美如是.

술은 맛있고, 또 고기가 많다. 고기와 술이 많고 맛있는 것이 이와 같다.

- (18) 『毛詩正義』「小雅 桑扈之什 頍弁」

爾酒既旨, 爾殽既嘉

[疏] 爾王之酒既旨美矣, 爾王之殽既嘉善矣.

그대 왕의 술은 맛있고, 그대 왕의 안주는 훌륭하네.

- (19) 『毛詩正義』「小雅 桑扈之什 賓之初筵」

酒既和旨, 飲酒孔偕.

56) 이 두 글자는 고대 경전을 주해할 때부터 서로 호훈(互訓)하였던 말이다.

『說文解字』旨部: 旨, 美也.

『詩·邶風 谷風』我有旨蓄. [傳] 旨, 美也.

『孝經注疏』喪親章 第十八: [注] 旨, 美也.

57) 『十三經注疏』의 하나로, (漢)毛亨傳, (唐)鄭玄箋으로 되어 있다.

〔疏〕其王之酒 既又和調旨美, 時眾賓之飲酒者威儀甚倍.

왕의 술이 또 부드럽고 맛있으니, 때맞추어 많은 손님들 술을 마시니 근엄한 모습 모두 한결같네.

- (20) 『毛詩正義』「大雅 生民之什 鳧鷖」

旨酒欣欣, 燔炙芬芬.

〔疏〕行旨美之酒欣欣然歡樂, 薦燔炙之羞芬芬然馨香.

맛있는 술 올리니 벽차게 즐겁고, 구운 고기 드리니 그윽이 향기롭네.

- (21) 『竹陰集』「竹陰先生集附錄·祭文」<sup>58)</sup>

對案加餐. 상을 대하고 음식을 더하며,

勸以旨美. 맛있게 드시도록 권하네.

위는 ‘旨美’가 이미 오래전부터 음식의 맛을 형용하는 보편적인 어휘로 사용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17~19)에서는 주어에 대한 술어로, (16), (20)에서는 음식물 명사를 형용하는 수식어로, 그리고 (21)에서는 개사 ‘以’의 목적어로 사용되어 그 쓰임 또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술어로 충당되고 있는 (17~19)를 보면, ‘旨美’가 주어인 음식의 맛깔스러움을 매우 적절하게 형용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음식디미방’에서 주어 ‘飲食’에 대해 ‘旨美’가 술어로 작용하여 ‘음식이 맛있다’는 뜻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잘 설명해준다. 이처럼 ‘디미’를 ‘旨美’로 여길 때, ‘飲食旨美’는 문장구조적인 측면이나 의미상에 있어서 그 결합이 더욱 조화롭고 적합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음식디미방’에서 ‘디미’가 ‘旨美’여야 한다는 것을 더욱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旨美’가 과연 ‘디미’로 읽힐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일단 옛 한자음을 수록하고 있는 『訓蒙字會』를 비롯하여 관련 자서류(字書類)에는 모두 ‘旨’의 독음을 ‘지’로 제시하고 있어 그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지만,<sup>59)</sup> 그러나 한편으로 앞의 ‘之’의 예에서 보듯이, 당시 보편화

58) [前參判 金大德], 1681, a083\_310a.

59) 『訓蒙字會』(앞의 책) 0044쪽: 뜯 지.

『新增類合』(앞의 책) 0098쪽: 므르 지.

『華東正音通釋韻』(앞의 책) 017a쪽: 旨, 美也. 즈/지 (\*주: 앞은 중국음이고, 뒤는

되었던 구개음화와 그에 따른 과도교정으로 초래된 한자음의 변화 양상을 감안한다면 민간에서 ‘旨’ 또한 ‘디’로 독음되고 표기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음이 ‘지’였던 ‘之’가 민간에서 ‘디’로 표기되었던 것처럼, ‘旨’ 또한 ‘디’로 읽혔을 개연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之’가 ‘디’로 표기되었듯이, ‘旨’ 또한 ‘디’로 읽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추정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 살펴본 자료는 『소현성록』, 『도야회통』, 『완월회맹연』, 『뉴니냥문록』, 『孝義貞忠禮行錄』 등이다. 여기에서 『소현성록』은 『음식디미방』과 동시대의 자료로 여길 수 있고, 나머지는 인접한 이후 시대의 자료로서 당시의 음운현상들을 아울러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60)</sup>

이상의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자서류의 본음과 달리 민간에서는 ‘之’와 마찬가지로 ‘旨’ 또한 본음인 ‘지’ 대신 과도교정된 ‘디’로 표기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22) 『소현성록』

- a. 즉시 던디 왈 답이 불명호야 (7권)  
(즉시 성지(聖旨)를 내려 말하였다. “짐이 밝지 못해서”)<sup>61)</sup>
- b. 드디여 소매를 썰티고 도라오샤 던디호야… (14권)  
(드디어 황제가 소매를 떨치고 돌아오셔서 전교(傳敎)를 내리셔서…)
- c. 궁인이 던디를 맞드려 논디라 (7권)  
(궁인도 교지를 받들고 왔기에)

---

한자음이다.)

『全韻玉篇』(奎256-v.1-2, 편자미상, 1819) 14면: 之 지.

『字典釋要』(1909년): 맛잇슬지.

60) 비록 많은 자료는 아니나,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수많은 자료를 찾고 뒤졌으나 더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연구자의 능력의 한계임을 토로한다. 제현의 도움과 다음을 기약한다.

61) 원문의 현대어 해석은 조혜란, 정선희 역주의 앞의 책을 따랐다. 이하 같다.

(22)에서 ‘던디’는 ‘傳旨’에 대한 당시 민간 독음표기로, ‘승정원의 담당 승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왕명서(王命書).=유지.’라는 뜻이다.<sup>62)</sup> 이는 바로 한자 ‘傳旨’의 ‘던지’가<sup>63)</sup> ‘던디’로 과도교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음식디미방』이 제작된 17세기 말에 한자 ‘旨’는 이미 ‘디’로 읽히고 표기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와 별도로 『소현성록』에는 또 ‘旨’의 독음으로 ‘디’와 함께 ‘지’가 병용되었는데, 이로부터 보면 당시의 한자음은 자서류의 본음과 무관하게 실제 민간에서의 독음은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관련 용례를 보인다.

(23) 『소현성록』

- a. 소상세 던지를 듯좁고 드러와 모친께 슬온대 (3권)  
(소상서가 전교(傳敎)를 듣고 들어와 모친께 아뢰니)
- b. 황상 던지를 욱디 말나 (3권)  
(황제의 전교를 욱되게 하지 마라)
- c. 이 응윤하시니 즉일노 던지를 청하야 스명을 보내니 (3권)  
(황제께서 응하여 윤희하시니, 그 날로 전교(傳敎)를 청하여 사명(使命)을 보냈다.)

(23)은 앞의 (22)에 사용된 같은 한자어 ‘傳旨’가 ‘던지’로 표기되어 한자 ‘旨’가 당시 민간에서는 여전히 ‘지’로도 독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외에도 같은 대화에서 ‘旨’의 한자음이 ‘지’와 ‘디’로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24) 궁인이 던지를 밧드러 형시를 드러 나을식 형시 문져 드러와 구고 존당의  
    뵈니 인 〃 이 다 눈물을 흘너 받기며 석부인은 새로이 아롭다와하디 쥬 잇  
    고 궁인이 던디를 밧드러 논디라 스경을 김초고 (『소현성록』 7권)

62) 『표준국어대사전』: 전지13(傳旨) 「명사」 『역사』 승정원의 담당 승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왕명서(王命書).=유지.

63) ‘傳旨’의 당시 본음은 ‘던지’이다.(『신증유합』(앞의 책) 傳: 던할 던, 경주 던.旨: 므릭지. 『광주천자문』(앞의 책) 傳: 옴길 던)

(궁녀가 교지를 받들어 형씨를 데리고 나왔는데, 형씨가 먼저 들어와 시부 모님과 할머니를 뵈니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반겼다. 석부인이 형씨를 새삼 아름답게 여겼지만 공주가 있고 궁인도 교지를 받들고 왔기에 사사로운 정을 감추고)

(24)는 앞뒤 어휘가 완전히 같은 상태에서 ‘ㄹ’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한자음으로 표기되어 ‘傳ㄹ’이 ‘던지’와 ‘던디’로 읽히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을 보여준다.<sup>64)</sup> 이 외에도 당시 구개음화와 과도교정의 혼란스러운 사례는 일일이 그 예를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밀도’(密詔)와 ‘조서’(詔書)의 조(詔), ‘형데’와 ‘형제’의 ‘제(弟)’, ‘부즈디의’(父子之義)와 ‘부즈지인’(父子之愛)의 ‘지(之)’ 등도 모두 이러한 당시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현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과도교정현상은 한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

(25) 『뉴시삼덕록』<sup>65)</sup>

주공(主公)의 교디(敎旨)를 밋즈와 (권지십이)

황후(皇后) 밀디(密旨)로 잡아 (권지십육)

(26) 『도야회통』<sup>66)</sup>

교디(敎旨)를 밋즈와 (v16 명덕정순인렬왕후(明德貞順仁烈王后) 한씨(韓氏)지문(誌文) 인조대왕비(仁祖大王妃)

64) ‘ㄹ’의 ‘디/지’ 독음과 함께 ‘傳’도 ‘던/전’으로 독음되었다.

조춘 황문시랑이 니르러 전지를 던히되 『소현성록』6권)

65) 18세기 초반 작품으로 추정한다.(조혜란 정선희 역주, 앞의 책, 5쪽 참조)

66) 『도야회통』(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K2-97, 편자 미상, 연대미상)

이 책의 정확한 편찬 시기와 국역 시기는 미상이다. 다만, 내용이 1725년(영조 1년)까지 기술되어 있어 일단은 한문본의 편찬 시기를 그 이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연려실기술』에 따르면 편찬자는 김재구(金載久, 1726~1791)이다. 21종이 넘는 이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장서각에는 한글본이 2종 소장되어 있다. 낙선재본 국문 소설 자료의 존재를 감안할 때 이 같은 국역본은 대체로 영조 이후 궁중에 있는 여성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도야회통 解題)

주:도승디(都承旨) (v32 숙종도(肅宗朝) 경신 녹년(庚申 六年))

(27) 『완월회맹연』

봉디(奉旨)흐믈 (권지삼)

존당의 감디(甘旨)를 밋드려 (권지오십륙)

틱낭낭 도디(詔旨) 여츠흐시니(권지칠십오)

샤혼디(賜婚旨)을 어더 도라오니 (권지스십륙)

임의 성디(聖旨) 계스 (권지스십륙)

상이 다시 던디(傳旨)흐스 (권지스십일)

(28) 『뉴니냥문록』<sup>67)</sup>

금일 성디(聖旨)를 듯즈오니 (뉴니냥문록 권지오)

냥부인(兩夫人)이 구고(舅姑) 감디(甘旨)를 친집(親執)햐야 (뉴니냥문록 권지육십구)

(29) 『효의정통예행록(孝義貞忠禮行錄)』<sup>68)</sup>

상이 던디(傳旨)햐샤 (卷之十六)

(30) <정보연간독><sup>69)</sup>

답빅디(答牌旨)흐는 법: 답빅디(答牌旨)[패지(牌旨)에 답함.

(25~30)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자료에서 ‘旨’로 구성된 어휘 곧, 교디(敎旨), 밀디(密旨), 도승디(都承旨), 봉디(奉旨), 감디(甘旨), 도디(詔旨), 샤혼디(賜婚旨), 성디(聖旨), 던디(傳旨), 그리고 답빅디(答牌旨)까지 모두 그 독음을 ‘디’로 하고 있어 최소한 17세기 이후 ‘旨’의 ‘디’ 독음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17세기 말에 씌어진 ‘음식디미방’의 ‘디미’ 또한 ‘旨美’의 한자음으로 여기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旨美’가 ‘디미’의 표기로 문제가 있다는 기존의 견해는 당시의 과도교정에 따른 한자

67) 『뉴니냥문록劉李兩門錄』(한국한중양연구원 소장본, [귀 K4-6792 1] 편저자 미상 간행년 (18-19세))

68) 이 작품의 구체적인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본 가운데의 서울대 1책본은 1870년에 필사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창작 년대의 하한선으로 보고 있다. (강문중, 「효의 정충예행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년. i쪽 참조)

69) <정보연간독> (편저자 미상, 간행년 1886~1886, 간행처 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청구기호 D4Bb7)



음의 변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내려진 착오라고 하겠다.

따라서 ‘디’가 ‘旨’의 한자음일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기존의 ‘知味’가 ‘음식디미방’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체현할 수 없다면 마땅히 이를 취소하고 ‘旨美’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당시 구개음화와 관련한 과도교정현상이 보편화되어 한자음 표기에 많은 혼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旨’가 ‘디’로 표기된 수많은 용례를 감안하면 ‘旨美’ 또한 ‘디미’로 표기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말하자면 ‘디미’는 또 하나의 한자어 ‘旨美’의 옛 표기이며, ‘맛있다’는 우리의 또 하나의 옛말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17세기 후반 당시 ‘旨’의 한자 독음이 ‘디’이기도 하였다는 사실과, ‘旨美’가 이미 오래전부터 ‘맛있다’는 의미로 음식을 형용하는 말로 사용되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음식디미방’의 ‘디미’는 ‘旨美’로, ‘음식디미방’은 ‘飲食旨美方’의 한자표기로 여겨야 옳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면 ‘음식디미방’은 글자 그대로 ‘음식의 맛있는 방문(方文)’, 즉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법을 쓴 글’이라는 뜻이 되어, 명실상부한 음식을 맛있게 하는 조리설명서로서의 음식조리백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旨美’는 기존의 ‘知味’를 대체할 가장 적절한 표기가 된다고 하겠다. ‘飲食旨美方’의 구절구조는 [음식디미][방]으로 이루어진다.<sup>70)</sup>

### 3. 旨味, 至味, 至美

‘음식디미방’의 서명에 쓰일 글자로 앞에 제시한 두 가지 이외에 또 ‘旨味’, ‘至味’, ‘至美’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 한자음이 같은데다가 단순히 단어 자체의 어휘적인 개념만을 생각한다면 이들 또한 ‘디미’와 얼마간의 관련성은 있어 보인다.

먼저 ‘旨味’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中文大辭典』에 표제어로 올

70) [음식][디미방]으로 여길 수도 있다.

라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 ‘旨味’의 용례는 매우 희귀하다.<sup>71)</sup> 그러나 사례가 희소하다고 하여 서명의 구성자로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디미’의 관련어로 함께 검토의 대상에 넣는다.

‘旨味’는 ‘美味’(맛있는 맛)와 동의어로,<sup>72)</sup> 당시의 독음 또한 ‘디미’여서 일정 부분 ‘디미’의 표기로서 일정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단어의 의미가 명사성을 띤다는 점에서 ‘음식디미방’의 앞뒤 어휘들과의 결합이 그다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飲食旨味’도 명사 술어가 되어 많이 어색하거니와, ‘旨味方’ 또한 통상적인 한문의 결합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飲食旨味方’의 결합 양상은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방문(方文)’이나 ‘방법’을 의미하는 ‘方’으로 끝나는 서명의 표기는, ‘수운잡방(需雲雜方)’처럼 후자의 경우를 보이기도 하지만,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 ‘두창경험방(痘瘡經驗方)’, ‘구황보유방(救荒補遺方)’에서 보듯 전자의 경우를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sup>73)</sup> 여기에서 ‘음식디미방’의 경우는 전체 의미를 고려할 때 전자를 따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旨味’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순수 국내 고유자료인 ‘음식디미방’의 ‘디미’와 자연이 관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至味’(아주 좋은 맛 또는 그런 음식)와 ‘至美’(아주 아름답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백두현은 ‘至’의 고음이 ‘지’이므로 ‘디미’의 표기로 문제가 있다고 하였지만, 이 또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至’의 본음은 ‘지’이지만,<sup>74)</sup> 실제 당시 독음에 있어서는 ‘之’, ‘旨’와 마찬가지로 음운상의 과도교정현상으로 17세기 당시 ‘디’로 읽힌 흔적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71) 연구자는 위 사전의 용례인 “[張敏頭責子羽文] 旨味弗嘗, 食粟茹菜”(진미는 맛보지 않고, 곡식 채소만 먹는구나.) 외에, 『新唐書』(儒學傳下·元澹)에서 “門下充旨味者多矣.”(문하에 旨味를 채우는 것이 많다.)라는 하나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72) 『中文大辭典』: 旨味, 美味也.

73) 어휘의 구절구조는 의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74) 『華東正音通釋韻考』(앞의 책) 015b쪽: 즈/지.

- (31) 『소현성록』  
 a. 텃성의 디극히 어디르십 곳 아니면 (15권)  
 b. 디극흔 정이 (15권)  
 c. 디성소격으로<sup>75)</sup> (12권)
- (32) 뉴시삼덕록  
 a. 은혜(恩惠) 디대(至大)하고 (권지십일)  
 b. 디극(至極) 공정(公正)흔 (권지구)
- (33) 덕효(大孝)와 디성(至聖) 디인(至仁)도 (완월회맹언 권지구십)

(31)은 ‘음식디미방’과 거의 동시대의 작품으로, 여기에서 ‘至’의 독음은 모두 ‘디’로 표기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주목하면 ‘至味’와 ‘至美’ 또한 ‘디미’로 표기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디미’가 ‘至味’, ‘至美’의 당시 한자표기가 된다고 할지라도 ‘음식디미방’의 ‘디미’가 ‘至味’나 ‘至美’일 가능성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 단어는 모두 주관성이 강한 의미의 ‘至’를 사용함으로써 통상적으로 객관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음식조리서의 제목으로 그다지 적절해보이지 않기 때문이다.<sup>76)</sup> 이 뿐만 아니라, ‘至味’는 또 ‘지극한 맛’이라는 명사성을 띠고, ‘至美’는 음식보다는 사물의 아름다움을 형용하는 성격이 강해 또한 음식조리서의 이름으로 잘 어울리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디미’의 한자표기로 ‘至味’와 ‘至美’는 또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음식디미방’의 ‘디미’와 관련하여 기존의 견해인 ‘知味’가 의미상에 있어서 음식조리서로서의 『음식디미방』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체현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디미’에 대한 새로운 표기로 ‘之美’, ‘旨美’, ‘旨味’, ‘至味’, ‘至美’ 등을 상정하고 그 타당성을 논하여 왔다. 그 결과 이들 표기는 한자음과 관련하여, 기존의 부정적인 견해와

75) ‘至誠昭格’의 한자어로 보인다.

76) 백두현은 ‘至’의 한자음이 ‘지’이기 때문에 ‘至美’가 ‘디미’의 한자표기일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지만, (백두현, 앞의 책, 21쪽) 이는 한자음의 문제라기보다 의미적인 측면에서 더욱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모두 당시의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 현상으로 ‘디미’로 표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旨味’는 명사성 의미로 문장구조 및 의미상 결합의 부자연스러움으로, ‘至味’와 ‘至美’는 비교적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음식조리서 제목에 주관성이 강한 의미의 정도부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또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之美’와 ‘旨美’만이 대체 가능한 표기로 여겨졌다. 다만, 이 가운데에서 ‘之美’의 경우는 ‘飲食之美方’이라는 전형적인 한문식(漢文式) 결구를 이루어, 순 한글 표기 ‘음식디미방’으로 이 서명을 대신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 또한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다시 전형적인 한문식 제목인 ‘閨壺是議方’이라는 표제를 따로 붙여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음식디미방’의 ‘디미’는 ‘旨美’의 당시 한글표기로, ‘맛있다’는 의미의 우리의 옛 한자어 표기로 여겨진다. ‘음식디미방’과 동시대의 자료에서 수많은 ‘旨’로 이루어진 다양한 한자어의 독음이 과도교정으로 인해 속음 ‘디’로 표기된 용례들을 볼 때, 17세기말에 씌어진 ‘음식디미방’의 ‘디미’를 ‘旨美’와 동일화시키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旨美’로 표기되는 ‘음식디미방’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문/방법’이라는 뜻으로 음식조리서로서의 의도 또한 매우 잘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디미’는 바로 ‘맛있다’는 뜻의 또 하나의 우리의 옛말인 셈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음식디미방’에 대한 기존의 한자 표기 ‘飲食知味方’이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수록한 음식조리서로서의 제목으로 의미상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이에 대한 새로운 표기를 모색해왔다. 그 결과 ‘之美’, ‘旨美’, ‘旨味’, ‘至味’, ‘至美’ 등의 관련 표기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디미’를 ‘旨美’의 옛 한자음 표기로 여기게 되었다. 이와 관련

하여 ‘旨’의 한자음이 ‘디’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견해에 대해서는 17세기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 현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음식디미방’이 제작되었던 17세기말에는 이미 수많은 민간 소설과 각종 문헌에서 한자음의 초성 ‘ㄷ’과 ‘ㄷ’ 음이 매우 무분별하게 병용되고 혼용되어, ‘之, 旨, 至’ 또한 본음 ‘지’와 무관하게 ‘디’로 통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제시된 ‘地味’, ‘知味’는 물론, ‘旨美’ 또한 ‘디미’로 표기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제 ‘음식디미방’은 ‘飲食旨美方’의 옛 한자 표기라고 제안하며, 그 뜻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문(方文)/방법’, 또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법을 쓴 글’로 풀이한다. 결국 ‘음식디미방’의 ‘디미’는 ‘旨美’의 옛 한자음으로, ‘맛있다’는 우리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디미방’에서 ‘디미’는 결코 ‘맛을 알다’는 뜻이 아니라, ‘맛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렇게 ‘디미’는 자체로 ‘맛있다’라는 뜻을 갖는 옛말로 인지되면서, ‘음식디미방’의 전체 의미 또한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문(方文) 또는 방법’이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아울러 ‘음식디미방’이 이렇게 풀이될 때 서명과 이름의 뜻과 책의 내용이 완전하게 일치될 수 있으며, 비로소 음식조리백과서로서의 의미를 제대로 체현할 수 있다.

사실 이 글은 ‘디미’가 ‘旨美’로 귀결되었지만, 처음 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것은 ‘之’의 속음 ‘디’였다. ‘知味’로 표기된 ‘음식디미방’의 서명이 책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설 목차에서 스치며 보았던 ‘권디일’의 잔상이 떠올랐고, 이를 바탕으로 ‘飲食之美方’을 구상하여 ‘지>디’음의 과도교정 현상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之’와 동음인 ‘旨’, ‘至’에 이르기까지 같은 음운현상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제 ‘음식디미방’에 대한 새로운 한자표기로 ‘飲食旨美方’을 제시하면서 그간 묵은 숙제 하나를 풀었다는 홀가분함과 함께 ‘디미’라는 표기의 옛 우리말 정체를 밝힐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간 연구자에게 ‘디미’라는 말은 정겨우면서도 뜻이 묘연한, 그 정체가 궁금했던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그것이 ‘旨美’의 옛 한자음으로 오늘날 우리

말 ‘맛있다’에 대한 조선시대의 또 하나의 옛 표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22년 5월 2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6월 22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광주천자문』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원간본, 1575년(선조8년), 일본 동경 대학 오구라(小倉)문고)
- 『類合』 (규장각 소장본, 일사古 418.3-G533y, 편저자: 高裕相(朝鮮)編, 간행년대: 1918)
- 『十三經注疏』 (清 阮元 校刻, 北京, 中華書局, 1987)
- 『新增類合』 (규장각 소장본, 一簣古 418.3 Y91s 편저자: 柳希春(朝鮮), 간행년대: 1576)
- 『全韻玉篇』 (奎256-v.1-2, 편자미상, 1819)
- 『千字文』 (규장각 소장본, 奎9801 편저자: 韓濩(朝鮮) 書, 간행년대: 1754)
- 『註解千字文』 (규장각 소장본, 청구기호: 一簣古418.3-J936, 편저자: 洪泰運(朝鮮)書, 간행년대: 1804)
- 『中文大辭典』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大北, 中國文化學院華岡出版有限公司, 1979)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 『華東正音通釋韻考』 (규장각 소장본, [가람古 416 B149h], 朴性源, 1747)
- 『訓蒙字會』 (규장각 소장본, [奎貴26], 편저자: 崔世珍(朝鮮)編, 간행년대: 1613)
- 『뉴시삼덕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K4-6793, 편자미상, 연대미상)
- 『뉴니낭문록劉李兩門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귀 K4-6792 1] 편저자 미상 간행년 미상)
- 『도야회통』,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K2-97, 편자 미상, 연대미상)
- 『완월회맹연권지일』 (규장각본, 청구기호: 古3350-65-v.1-93, 편저자: 미상, 간행년대: 1902)
- 『완월회맹연(玩月會盟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청구번호 K4-6834)
- <정보안간독> (편저자 미상, 간행년 1886-1886, 간행처 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청구기호 D4Bb7)
- 『창선감의록[倡善感義錄]』4冊(필사본),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소개 /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소장본, 청구기호 L44810, 발행사항: 순조 18(1818), 表題: 倡善感義錄)

- 『창선감의록(倡善感義錄)』(규장각 소장본, 청구기호: 一簣古813.5-C3629g-v.1-5 趙聖期(朝鮮)著, 간행년대: 1671, 國文)
- 『효의정통예행록(孝義貞忠禮行錄)』(한국한중양연구원 소장본, K4-6874, 편저자 미상 간행년미상)
- 권정희,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 〈일락정기〉 비교 연구」, 홍익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년.
- 김미영, 「전통의 오류와 왜곡의 경계선」, 『비교민속학』46호, 비교민속학회, 2011.
- 김영, 「朝鮮 後期 明代 小說 翻譯 筆寫本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년 박사학 위논문.
- 김지연, 「초기 국문 장편소설 〈옥기린(玉麒麟)〉 연구」, 『한국고전연구』12집, 한국 고전연구학회, 2005.
- 문화재위원회,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배영동, 『음식디미방』음식명에 병기된 ‘맛질방문’의 정체 재검토」, 『실천민속학연 구』39권, 실천민속학회, 2022.
- 백두현, 「『음식디미방』[閨壺是議方]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연구」, 『영남학』창간호. 영남문화연구원, 2001.
- 백두현·정연정, 「『음식디미방』의 ‘맛질방문’ 재론」, 『지명학』30권, 한국지명학회, 2019.
- 엄기영, 「〈창선감의록〉의 창작과 명나라 역사 차용의 의미」, 『古典文學研究』第53輯, 한국고전문학회, 2018년.
- 엄태식, 「〈창선감의록〉의 창작 저변과 서사적 특징」, 『고소설연구』32권32호, 한 국고소설학회, 2011,
- 이준환, 「舌音系 漢字音의 口蓋音化」, 『한국어학』34. 한국어학회, 2007a.
- 이준환, 「고유어와 한자어 구개음화의 상관성」, 『國語學』第49輯, 2007b.
- 鄭承喆, 「제주본 훈몽자회의 漢字音」, 『韓國文化』25.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0.
- 金鎭世, 『玩月會盟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박재연·양승민 교주, 『玉麒麟』, 다운샘, 서울, 2004.
- 백두현 주해, 정부인 안동 장씨 저, 『음식디미방 주해』, 서울, 도서출판 글누림, 2006.
- 백운용 역주, 태민국학연구원 연구총서 57, 김광순 소장 필사본 고소설 100선, 『창선감의록』, 서울, 박이정, 2019.



완월회맹연번역연구모임, 『교주 완월회맹연』, 서울, 휴머니스트, 2022.

조혜란·정선희 역주, 『소현성록(蘇賢聖錄)1』, 서울, 소명출판, 2010.

한복려·한복선·한복진, 『(다시 보고 배우는) 음식디미방』, 서울, 궁중음식연구원, 1999.

황혜성, 『閨壺是議方 음식디미방』, 韓國印書出版社, 1980.

Abstract

## About 'dimi(디미)' of *Eumsikdimibang*(음식디미방)

Han, Hak-jung

Until now, the Chinese characterization of 'Eumsikdimibang(음식디미방)' has been regarded as '飲食知味方', and the meaning is 'how to make food delicious.' However, these Chinese characters do not match their meanings. This is because '知味' only means 'know the taste' and does not mean 'make the food delicious.' Therefore, '飲食知味方' does not seem appropriate as a notation of 'Eumsikdimibang' as a food cookbook.

Accordingly, this study sought a new notation of 'Eumsikdimibang', and as a result, derived a Chinese character notation written '飲食旨美方'. 'Eumsikdimibang' is a Chinese characterization of '飲食旨美方', and its meaning becomes 'A manual for making delicious food'.

However, when 'Eumsikdimibang' is a Chinese characterization of '飲食旨美方', the question of how '旨' with the main sound 'ji(지)' can be marked as "di(디)" emerges as a key issue, which could be solved by a common transitional phenomenon at the time. Many examples of '旨(di/디)' have already been shown in the popular novel of the time. If 'di(디)' can be a Chinese consonant of '旨', 'dimi(디미)' can be regarded as '旨美', and its meaning also means 'delicious'.

Considering the Chinese consonants, vocabulary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new title, '飲食旨美方' will finally match the identity of 'Eumsikdimibang'.

**keywords :**

Eumsikdimibang(음식디미방), make food delicious, A manual for making delicious food, know the taste(知味), dimi, 旨美(delicious). transitional phenomenon

